

신앙교육과 교회성장

최덕성*

최근의 한 설문조사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청소년들에게 “왜 교회를 가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간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안가면 부모가 혼내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이 그 다음이었다고 한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며 자신을 신앙인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일면 교회가 신봉하고 있는 신조와 부모나 친구의 종교적 관습을 자신이 관습적으로 그리고 타율적으로 신봉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현대 기독교인 신앙의 특성 중 하나는 무기력함, 수동성이다. 신

* 고려신학대학(BA), 미국 리폼드신학대학원(M.Div., M.C.E.), 미국 예일대학교(S.T.M.), 미국 애모리대학교 대학원(Ph.D.),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교회문제연구소 소장

앙과 행동의 괴리현상이 뚜렷하다. 이 괴리현상은 예배처소에 나올 때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며 심지어 죄책감으로 변해 “옛세 동안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왔다”라는 기도로 표현 한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마치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 엔진처럼 상당한 성경지식과 교리를 알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신념들을 자기 것으로 삼거나 그것에 동의하며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진행(信行)의 괴리가 심하며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문제는 중생체험, 영적 각성, 신앙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하지만 신자가 죄를 끊는 것도, 악을 멀리하는 것도, 믿는 바대로 살 수 있는 것도, 강력하게 세상의 도전과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강력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신앙적 자아 의식, 내면적 독자성 혹은 주체의식을 가진 신앙 구축이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직하다.

신앙교육은 신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성경지식과 개혁주의 신념 체계에 기초한 세계관과 교리를 가르치는 단계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기를 깨뜨리고 의식의 세계에서 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서 조차 신앙을 내면화하는 영적 의식의 자각을 갖는 신앙발

달에 초점을 모을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시대의 교회성장은 이처럼 신앙적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신자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아진다. 교회 다니는 사람(church-goers) 수를 많이 확보할 것이 아니라 영적 자각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believers)으로 양육해야 할 것이다.

1. 신앙(Faith)과 신조(Belief)¹⁾

설교사역을 포함한 교회교육의 기본적 사명은 ‘신앙’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다.²⁾ 신앙은 일차적으로 진리, 도, 가치세계, 행동 양식, 소망 등을 자신의 것으로 수납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실제로 헌신하고 있는 궁극적 관심의 대상을 향한 자신의 신뢰(trust)와 위탁(commitment)이다. 신앙은 신적 존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목적, 우선순위, 절대적 가치, 자아, 자아의 확장으로써의 직업, 지위, 평판, 영향력, 재물, 사랑, 성, 타인 등을 둘러싼 것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광의적 의미로서의 신앙은 제도, 제의, 종교 형식들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 즉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과 가장 값비싼 충성을 바치는 방법들을 형성해 준다.³⁾

신앙(faith)과 신조(belief)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구분된다. “신앙은 보다 심원하고 풍부하여 개인적이다. 신앙은 종교적

전통에 의해 생겨나고, 때로 어느 정도까지는 종교적 교리에 의해 생겨난다. 그러나 신앙은 제도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성질의 것이다. 신앙의 인간을 그 자신과 그의 이웃과 세계에 대하여 방향 짓는 것으로써의 전인적인 반응이다. 일상적 삶의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과도 관련된다.”⁴⁾

신조는 신앙의 구성요소이다. 종교와 관련된 신조는 초월적 경험과 그 관계성을 개념 혹은 명제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의 열매이다. 신앙은 명제나 개념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초월적인 존재,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분의 가르침에 대한 충성이다. 나아가서 “신앙은 인간의 삶의 특징이다. 최상의 신앙은 삶의 특성이다. 최상의 신앙은 평온과 용기와 충성과 봉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최고도의 신앙은 고요한 확신과 기쁨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우주 안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며, 이 세계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심원하고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해도 혼들리지 않는 그러한 확신과 기쁨이다.”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난과 혼란, 풍요와 슬픔에 직면해도 동요하지 않으며, 확신과 의욕에 넘쳐 기회를 포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베푼다.⁵⁾

‘신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aman he min, munah’와 희랍어 ‘pistuo, pistis’, 그리고 라틴어 ‘credo, credere’ 등은 모두 ‘belief’를 뜻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존

재를 인정한다'는 것과 다르게 사용되었다. 고대 사회의 유대 기독교인과 로마인들은 신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신의 존재 유무는 문제조차 되지 않았다. 라틴어 'credo'는 '나는 마음을 쏟는다', '나의 마음을 바친다'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나는 이로써 나 자신을 …께 맡긴다', '나는 충성을 서약한다' 등으로 사용되었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에게 인식된 것에 자기를 맡기고 그렇게 맡김으로써 형성된 생활에 충실하게 된다.⁶⁾ 신앙은 마음 혹은 의지의 문제로 절대자를 신뢰하고 그 분에게 충성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신을 위탁하는 일이다.

'나는 믿는다' (believe)는 동사는 16세기 초까지만 해도 '마음을 쏟는다'의 의미와 가까웠다. 신앙을 뜻하는 현대 독일어 'Glaube' 조차도 '소중히 하다', '사랑하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종교개혁기 이후 특히 17세기와 18세기 동안 'belief, believe' 란 용어는 신앙적 선언을, 하나의 명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떤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신앙하다'는 말이 하나의 명제를 목적으로 받는 경우 신조체계의 진실성과 적합성에 관한 교리적 선언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은 일련의 명제들을 승인하는 것, 즉 신조체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었다.

개혁파 정통주의(Reformed Orthodoxy) 전통은 전통적으로 신앙의 외형성(externality)을 강조해 왔다. 무엇을, 어떤 형식에 따라 믿을 것인가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 칼빈의 가르침과는 달리⁷⁾

'신앙'을 진리체계에 대한 인정, 승은 혹은 동의(assent)로 이해하는 경향을 지니고 신앙교육에 있어서 성경과 신조를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모았다. 설교도 논리적인 진술에 관심을 보였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 등을 외우고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속죄 등 일련의 교리체계를 수납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여겼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식 개념을 가진 개혁주의 전통하에 있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단들이 교회성장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음전도 활동이 빈약하고, 대체로 경직되어 있으며, 역동성이 적고, 교회성이 중지 혹은 감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인세례를 베푸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자녀를 많이 낳아 키움으로써 동일 문화를 가진 자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듯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고 않도록 다독거림으로써 교인감소를 자연시키려 하고 있다. '개혁주의 전통'이 '교회 성장'이란 주제와 걸맞지 않게 여겨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서 만은 예외였으나 탁월성, 역동성, 적응력을 키우지 않는 수구적 망딸리떼를 가진 한국 교단들은 멀지 않아 서양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 가르침에 기초해 있으며 이 가르침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간명한 조직적 표현으로써의 신조나 교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일차적으로 성경의 내용과 교리적 진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앙은 신조에 기초해 있으며

어느 정도는 신조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신앙의 교리적 수납과 동일시될 때 제기되는 첫번째 문제는 우리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녔던 신앙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신앙은 언제나 관계적이다. 신앙에는 항상 대항 혹은 타자가 있어서 “나는…를 혹은 …을 신앙한다”라고 표현한다. ‘신앙한다’는 말은 부모와 자녀, 학생과 교수, 임금과 신하 사이에 존재하는 충성과 신뢰와 의존성을 담고 있다. 둘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교리적 체계를 수납,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Belief는 있지만 Faith는 없는 자들, 지식과 습관적 교회생활은 있지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충성, 헌신하는 역동적인 신자들을 확보하기 어렵다.

Faith는 Belief에 대한 수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칼빈이 이해한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heart)을 주께 바칩니다”에 있었다. 미국 칼빈대학교의 뱃지나 한국의 학생신앙운동의 뱃지 안에 사랑 마크를 손으로 받치고 있는 모양은 칼빈이 가르친 신앙의 정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칼빈의 가르침과 개혁파 정통주의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혹은 의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충성과 신뢰로 구성된 하나님의 의존성, 즉 위탁(commitment)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앙의 궁극적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분에게 자신을 위탁하는 일이다. 신앙은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존재하며, 절대 타자에 대한 신뢰와 초월적 가치 및 영적 힘의 중심에 대한 충성이다. 신앙은 주체적이며 총체적이다.

2. 신앙의 발달단계

바울은 신자의 ‘신앙의 진보’를 역설한 바 있다(빌 1:25, 딤전 4:15 참고). 개혁주의 전통이 강조하는 성화(Sanctification)의 교리의 핵심은 신앙의 성장에 있다. 웨슬레신학이 강조하는 완전(perfection), 동방신학이 강조하는 신성화(神性化, deification)는 모두 신앙의 상승 혹은 발달을 뜻한다. 신앙은 중생의 체험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발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

애모리대학교의 신앙발달연구소의 소장인 제임스 푸울러(James Fowler)⁸⁾는 피아제(Piaget), 에릭슨(Eric H. Erikson), 콜버그(Lawrence Kohlberg)등이 제공한 인간발달심리 이론과 8년간에 걸친 400명 이상 사람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신앙의 발달단계를 분석한 바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일곱 단계는 그의 명저 「신앙의 단계들」(Stages of Faith)⁹⁾을 요약한 것이다. 필자는 포울러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일어나는 신앙의 변화와 발달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단계들을 뛰어넘거나 초월할 수가 있다. 신앙 발달의 단계들을 그처럼 지나치게 세분화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신앙’이란 반드시 기독교적인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신앙적 의식

의 발달을 통한 인간성숙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을 소개하는 것은 자각적인 신앙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1) 유아기적-미분화신앙

아이가 이른 아침에 잠을 깨면서 배도 고프고 기저귀도 축축하면 막연한 불안을 느낀 나머지 울음을 터뜨린다. 답답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자를 찾는 것이다. 유아기에 속하는 미분화된 신앙인은 이와 마찬가지로 막연하게 종교성 혹은 종교의 씨앗 혹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절대자를 의식하는 단계에 있는 자이다. 신임, 용기, 희망, 사망 등의 씨앗들이 미분화된 방식으로 융합되어 양육자로부터 보살핌을 받고자 한다.¹⁰⁾

2) 제1단계 : 직관적-투시적 신앙

아동기에 해당하는 3~7살 사이의 아이는 인식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내적으로 성장한다. 직관적 투시 단계에서는 쉴새없이 “이게 뭐야?”(what), “왜?”(why)라고 물어댄다. 이 단계의 아이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다. 지각 대상에 대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통합시키고 비교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에 대해 자기가 경험한 것과 자기가 지각한 것이 유일한 관점이라고 아무 의심 없이 믿어버린다. 상이한 견해와 관점을 통합시키지도 못하고, 자기의 관점이 적합한 것인지를 검토할 줄도 모른다. 이 단계의 아동은 자기

와 가까운 어른들이 보여주는 본보기들, 분위기, 행동, 이야기들에 의해 매우 강력하고도 영속적인 영향을 받는다.¹¹⁾

이와 마찬가지로 이 단계에 속한 신앙인은 환상적 생각을 좋아하며 교리에 관해 질문을 많이 하지만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미지들과 느낌들로 구성된 사고를 통해 긍정적인 것들과 부정적인 것들을 대립시킨다. 타인을 모방하며 자기 중심적이다.

3) 제2단계 : 신화적-문자적 신앙

10세 전후의 어린이는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 수 있고 사물을 분류하거나 조작할 수 있고,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나 사물에 대한 타인들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을 추론하고 검증할 수도 있으며 보다 질서정연하고 신방할 만한 세계를 구성하면서 어느 정도 귀납적 사고와 연속적 사고를 할 수 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실재를 구분하려고 어느 정도 귀납적 사고와 연속적 사고를 할 수 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실재를 구분하려고 한다. 자기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자기의 경험을 의미와 결합시킨다. 자기가 속한 가족이나 사회의 기원과 그 형성에 관한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다. 타인의 관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며, 상호간의 공평성과 권리장악을 이해한다.¹²⁾

이 단계의 신앙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상징 이야기, 신조, 관례를 받아들여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교리를 수용하고,

그것의 이치를 다소 이해하며, 그것들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도덕적 규칙들과 신조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청년기와 성년기의 사람도 이러한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4) 제3단계 : 비분석적-관습적 신앙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는 신체 및 정서적 생활에 변화가 일어난다. 거울이 필요하며, 얼굴은 얼마나 더 틀이 잡혀졌는지, 신체의 곡선은 얼마나 더 멋있게 되었는지를 관찰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형성되고 있는 표현들을 찾기 시작한다. 새로운 느낌들, 통찰력, 불안들, 결단 등을 들어줄 귀와 자신의 내면 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인간성의 이미지를 보아줄 눈을 가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찾는다. 이 때 ‘단짝’이 생긴다.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사고가 생겨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 사물에 대한 평가력이 생기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가설과 설명을 붙인다. 현실을 준엄하게 비판하는 태도도 갖는다.¹³⁾

이 단계의 신앙인은 자신의 암묵적 가치체계와 신조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이데올로기’, 즉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조들의 둉어리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그것을 객관화시켜 검토하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어떤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가치있다고 생각되며 그것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타인들의 기대와 판단에 예민하게 좌우되는 반면 독자적인 관점을 형성하여 그것을 따르기에는 아직 자신의 주체성과 자율적 판단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즉 인간관계의 경험들을 확장시키는 단계라는 점에서 이 단계를 순응(Conformist)단계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단계의 신앙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평생 이 상태를 유지하는 성인들도 많다.

5) 제4단계 : 주체적-자기반영적 신앙

포울러가 밝히고 있는 제4단계는 청년기, 즉 중학생시기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생기는 것으로 이 나이가 되면 아이는 새로운 독자적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부모를 떠나 홀로 여행하거나, 타지에서 유학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가정을 떠나 독립하거나, 군입대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접하거나, 한 사회로부터 한 사회를 옮겨가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접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관습적 가치를 재검토하게 된다. 제4단계의 발달은 원초적 관계들에 변화가 생길 때 일어난다. 부모의 이혼, 사망, 자신의 가출, 이사, 전업, 파산, 그리고 제3단계의 비분석적-관습적 신앙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일어난다.¹⁴⁾

주체적-자기반영적 신앙 단계에서 신앙인은 자신의 세계관, 가치체계를 상대적으로 인식한다. 자신의 신조나 가치에 대해 비판적 생각을 가지면서 신조에 단순히 동의,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것을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인지한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요인들을 인지한다. 자아 주체성과 자기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능력도 생긴다. 지금까지 의존해 왔던 관습적 권위들을 벼랑으로써 강한 실행적 자아를 대두시키기도 한다. 이제까지 지녀왔던 암묵적 가치체계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며, 외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신앙의 관습적 정착지를 떠나 두렵고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지내는 동안 자아의식이 생기며 강력한 주체성이 생긴다. 이 주체성은 자신이 선택하는 개인적 인간 관계 및 집단과의 관계와 자기 자신의 생활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와 생활태도를 통해 새로운 자기 주체성이 형성된다.

이 단계의 신앙인은 비판적 질문을 통해 종교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 매개와 의미를 파악한다. 예배상의 제의나 종교적 상징을 보았을 때 “그러나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이제까지는 상징이나 상징적 행위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참여자에 대해 권능을 발휘했지만 이제부터는 참여자가 상징 이해에 대해 주도권을 갖는다. 아무런 의심없이 일련의 종교적 상징들을 통해 초월자와 관계하고 다른 예배자들과도 관계하던 자가 이 단계에 접어들면서는 상징의 의미들을 개념화한다. 일종의 상실감의 전도, 슬픔과 심지어는 죄의식까지 느낀다. 자신의 결단이나 생활태도, 신조, 자세 등에 대해 심각하게 책임을 느낀다. 주체성 대(對) 집단, 주관성 대(對) 객관성, 제1차원적 관심으로서의 자기 성취

혹은 자기 실현 대 타인을 위한 봉사와 타인을 위한 노력 등의 긴장관계를 직면한다. 자아, 즉 자기 주체성과 자기의 견해는 세계관을 타인들의 것으로부터 구분하며, 자기 및 타인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해석과 반응에 있어서 자아와 자신의 세계관을 고려한다. 자신의 자기 주체성 혹은 세계관이 궁극적 환경과 일치하는가에 관한 관심을 가진다.

이 단계의 신앙은 자신의 깨어있는 정신과 비판적 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부가적 나르시즘에 빠져 반성적 자아가 실제와 타인들의 관점들을 자기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지나치게 동화시킬 수도 있다.

6) 제5단계 : 접속적 신앙

중년기에 이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的 논리를 넘어서서 어떤 문제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인식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자기가 먼저 생각해 놓은 것에 억지로 짜맞추려는 경향을 벗어나 사물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의 패턴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러한 변증법적 인식의 단계는 성 어거스틴이 제시한 방법으로써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나를 읽고 나의 요구와 성령의 역사를 내 속에서 의식하도록 만들어지는 단계이다.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심충적 자아에서 올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자기 속에 무의식적으로 뿐리깊이 작용하고 있는 신화, 이상적 이미지, 편견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게 된다. 역설과 명백한 모순 가운데 있는 진리를 인식함으로써 자기의 생각과 경험 속의 정반대되는 것들을 통일시키려고 노력한다. 정의를 따를 때 종족, 계층, 종교적 공동체, 민족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¹⁵⁾

이 단계의 신앙인은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의 기이한 진리가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동전의 양면성을 고려하며 자기와 자기의 견해를 위협하고 자기의 것과 다른 것을 포용한다. 그런데 양면성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수동적이 되거나,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 채 물러서거나 자기 마음속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7) 제6단계 신앙

마지막 단계는 성자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완성의 단계이다. 포울러는 테레사 수녀, 본 훼퍼, 토마스 머튼을 모델로 삼고 있다. 완성의 단계라고 하여 완전한 인간성취의 단계로 볼 수 없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단계이다. 포울러는 이 단계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이 단계는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단계로써 미래의 약속에 매력을 느끼며, 절대자를 의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¹⁶⁾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단계에 도달한다.

3. 신앙발달 모델로서의 야곱의 신앙성장

구조주의에 입각한 뼈아제, 콜버그, 에릭슨, 포울러 등 심리학자들의 도덕, 인격, 인지의 발달 단계의 도식에 철저히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성경이 제시하는 많은 모범들은 일련의 신앙발달의 실재를 부정할 수 없게 한다. 야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어머니 치마 폭에서 의식없이 살아가던 내성적이고 극도로 이기적이었던 그는 몇 단계의 영적 의식의 발달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갔다. 팔죽으로 형을 속이던 시절, 광야 길을 지나 하란에 있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형 에서를 만날 때는 각각의 신앙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압록 강가에서의 야곱과 브니엘에서의 야곱은 달랐다.

야곱은 자신의 내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원초적인 본성과 무의식에 대향으로부터 양적인 자아가 솟아나고 연단되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사물을 독자적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인식하고 분별하는 안목을 지니는 신앙인물로 성장했다.¹⁷⁾ 의식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차원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자율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단계로 발전했다. 강력한 내면적 독자성과 신앙적 주체의식을 가지고 독자적 판단에 기초한 자율적 신앙행동을 보여주었다.

포울러가 제시하는 제4단계의 주체적-반영적 단계에 초점을 두고 야곱의 신앙발달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자.

종교적 전통의 가문에서 자란 야곱은 형 에서와는 달리¹⁸⁾ 내향

적이고 여성적이었지만 에서를 제치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꿈을 키웠다. 인생의 가능성을 훼뚫어 보려는 특성과 상상의 세계 속에 살았다.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난 야곱은 지독히 이기주의적이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개인적인 권세와 지배를 얻으려는 갈망이 심했다. 기다렸던 기회가 왔을 때 교활한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다. 이 무렵 특기할 만한 일은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만 결코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신적으로 솔직한 개성을 지녔다. 이상은 포울러가 말하는 제1단계 : 직관적-투시적 단계에 속한다.

도망자로서의 야곱은 광야 여행에는 생명의 위협, 염려, 굶주림, 맹수의 습격, 도둑, 추위와 더위를 경험했다.

첫 번째 경험은 고통을 통한 자각이었다. 가정에서 곱게만 자란 내성적이고 직관적이었던 그는 광야의 거친 환경에 적응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¹⁹⁾ 새로운 환경들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정신적 기능에 의지하게 만들었다. 고난의 여정에 들어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의 전통에 따라 기도를 시작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신념과 관례에 따라 기도함으로써 아직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영적 혹은 정신적인 기능에 호소했다.

두 번째 경험은 자아가 하나님과 직면하는 단계이다. 야곱은 꿈 속에서 위대한 분을 만나며, 고난 속에서 예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각성이 생겨났다.²⁰⁾ 이제까지 야곱은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 홀로 고난의 길을 여행하면서 독자적 자주성의 발달을 경험한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창 28:17)고 외쳤다. 이러한 정신적인 발달은 신앙성숙에 필요한 하나님의 통파의식이었다. 이기심을 죽이고 새로운 신앙적인 자세를 갖는데 필요한 영적인 경험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꿈을 깨 후에 야곱은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일련의 ‘홍정’을 했다.²¹⁾ 야곱의 서원은 어떤 의미에서 조잡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사업이 잘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홍정이었다. 하나님은 홍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야곱의 기도가 비록 조잡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영적인 발달의 한계였다는 점을 눈여겨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만이 아닌 다른 인격체, 즉 하나님의 실체를 의식하고, 이기심이라는 철옹성에 약간의 틈바구니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야곱의 꿈은 만사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뤄졌고, 무의식 깊은 곳에서 생겨난 원형적인 것이었다. 정신적인 위기를 직면하면서도 사닥다리를 통해 임하는 천사들, 영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내포하고 있었다. 야곱은 스스로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를 밟고 올라갈 만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영적인 발달이 시작되고 영적인 의식의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것이다. 포울러가 말하는 제2단계, 즉 신화적-문자적 단계를 경험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삼촌댁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은 목적지 하란에 비틀거리며 도착하여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만나고 그녀를 사랑하면서 포울러가 말하는 제3단계, 즉 비분류적-관습적 신앙의 단계로 진입한다.²²⁾ 인간관계를 확장시키는 ‘순응’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암묵적 가치체계와 신념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하게 된다. 이제까지 어머니 치마자락에서 맴돌던 그가 한 여인을 에로스의 대상으로 여긴다. 야곱은 라헬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했으며, 그녀를 얻기 위해 7년을 하루같이 머슴살이를 했고, 라헬이 아닌 레아가 첫날 밤에 주어졌을 때 다시 7년을 더 머슴살이를 했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지참금이 없었던 그는 그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했다. 야곱은 이성에 대한 자신의 여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성을 사랑했다. 이상적인 여인상이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환상적이고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만약 그가 부모 아래서 결혼을 했다면 제도와 형식과 관습의 그늘하에서 그러한 성숙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야곱은 사회적인 규범을 따라 순응하기 위해 사기 당해 결혼한 레아에게 최선을 다하는 인간적인 내면의 성숙함을 보였다.

삼촌의 가축을 자기의 가축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야곱은 자신을 해칠 음모를 알고 빨리 도망쳐야 했다. 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창 31:3)고 말씀하셨다. 야곱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접어 들었다. 고향에 돌아가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그곳은 살기등등한 애

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제3의 장소로 탈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악한 일을 행했던 땅으로 돌아가 애서를 만나지 않는 한 정신적, 영적 발달은 결코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없었다. 제3의 장소로 도망가서 육신적인 평안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는 라반의 땅에서도 고치지 못한 자신의 무서운 행실들, 이기심이라는 두터운 벽을 헐지 못하게 된다. 영적 성숙은 그 단계에서 고착되거나 중지되고 만다.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 형 애서와 화해하고, 속임수로 일관했던 과거의 자신을 대면하며, 자기의 원초적인 이기심과 본성을 거슬러 문제를 직면해야 했다. 그것은 야곱의 신앙발달, 즉 영적 의식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였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독자적으로 결심했다. 그것은 수동적 순종이 아니라 강력한 자아의식을 가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응답이었다. 포울러가 말하는 제4단계의 신앙에 이르렀던 것이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모든 평안함과 안전함을 뒤로 하고 위험한 미지의 미래를 대면해야 했다. 위대한 어떤 분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가족, 식솔, 양떼, 종들을 거느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갔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과거의 야곱은 자기의 목표를 관찰하려는 사람이었으나, 현재의 야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이기심은 깨뜨려졌고, 새로운 신앙 인격이 그 속에서 자리잡았다.

삼촌 라반의 군사가 떠나간 야곱을 뒤쫓고 있었고, 앞에는 형 에서의 군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에서와의 화해의 메세지를 전하기 위해 보낸 용사 선발대는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살기등등해 있음을 보고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식솔들과 종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장소로 출행랑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기도를 올렸다. 그의 기도는 압록 강변에서 행했던 흥정식의 기도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온갖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로 한 약속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에서의 진노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자기의 두려운 심정을 솔직히 아뢰었다. 야곱의 솔직하고 정직하며 숨김이 없는 기도는 주체적 자아의식의 발달을 반영하고 있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율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다. 가족, 종, 가축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한 후 그날 밤은 홀로 지냈다.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함께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홀로 있기를 원했다. 사람은 홀로 있게 되면 의식의 문턱이 낮아져서, 내적인 소리들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영적 체험들 중에는 타인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홀로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 많다. 야곱은 홀로 있을 때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 갑자기 어떤 존재가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고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²³⁾ 야곱이 그 긴 밤 동안 내내 무서운 적과, 그것도 미지의 세계로부터 온 신령한 존재와 더불어 씨름했다는 것은 그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강건하고 용감해졌는가를 말해준다. 야곱이 어머니의 치마폭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도 그 두려움 때문에 기절하거나, 죽거나, 자비를 구하거나, 도망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밤새 씨름을 함께 할 만큼 성숙해 있었다. 심지어 그 씨름의 의미를 파악하기까지 그 영적 실체를 놓치 않으려고 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경험하고 있는 바의 의미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어렵고 무서워도 그 체험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으며, 영적인 실체와의 만남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그것과 씨름하고 새로이 탄생되기를 원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통과하여 야곱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어냈다. ‘빼앗은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다. 야곱은 영적인 씨름을 통해 내면에 있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와도 씨름을 했던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인 자아와 이제 그 이기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자아 사이에 심각한 투쟁을 경험했다. 날만 새면 죽임을 당할 자신의 내일을 눈 앞에 두면서 내면의 검은 그림자와 씨름을 했다.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이기심과 사기성이라는 검은 그림자를 내 쓰고, 자신 안에 있는 새로운 영적인 자아와 더불어 손을 잡았고 씨름에서 승리하려고 했다. 마지막 강을 건너기 전 진일보한 새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의식의 세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조차 검은 자아와 더불어 씨름해 이겼다.²⁴⁾

이 씨름의 의미는 누가 이기고 지며, 누가 힘이 세고 약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일격을 가하시면 환도빼만이 아니라 전신을 으깨놓을 수도 있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더 높은 단계의 신앙발달과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체험은 영적인 실재를 확신케 하며, 지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준다. 많은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체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을 경험한 자는 과거의 자아로 돌아가지 않고 대개 생을 앞질러 나가며, 매일 그들의 내적 실재가 바로 곁에 있다고 느끼며 살아간다. 그들은 대개 말이 적고 고독해 하지만 그 고독 자체는 위대한 축복이기도 하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야곱은 형 에서에게로 나아갔다. 지칠대로 지친 그는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외에 의지할 것이 없었다. 살고 죽는 것은 차안의 문제였다. 생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실 일이며 자신의 급선무는 이기심을 포기하고 사기꾼으로서의 자아를 직면하고,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었다. 무장한 에

서의 용사들이 한 발자국씩 다가왔으며, 무시무시한 장면이 펼쳐졌고, 이제라도 도망가면 생명은 부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에서에게 다가갔다. 야곱은 그만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있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이처럼 야곱은 강력한 주체성을 지닌 자율적 신앙인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야곱은 에서에게 다가가 형에게 일곱 번 절을 함으로써 포울리가 말하는 제5단계의 신앙을 보였다. 옛날에 배고파 지쳐 돌아온 형에서에게 팔죽 한 그릇 주기를 거절했던 그 오만한 청년시절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은 달랐다. 에서가 수용하기 전에 야곱이 형을 먼저 수용한 것이다. 야곱은 엎드려 형을 향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라고 말했다(창 33:10). 에서는 야곱을 포옹하고 울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마음, 적개심, 복수심을 풀고 한없이 울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검은 그림자를 직시했고, 자기를 대면하면서 내면의 균형을 얻었다. 검은 그림자와 손을 잡지 않고 이제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기 자신과 손을 잡았던 것이다.

4. 결론—자율적 신앙

성인과 청소년을 막론하고 신앙교육은 신조, 성경 지식을 가르치며 일련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념(belief)을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

주체적인 ‘신앙’(faith)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신앙이 원시적 차원에 머물러 있거나 신화적, 문자적, 관습적, 비분류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강력한 자아의식을 가진 자율적 주체적인 것이 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포울리가 말하는 높은 단계의 신앙은 아랫단계의 신앙의 발달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회자나 교회교육 담당자는 ‘주체적－자기반영적 단계’의 신앙발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자들이 야곱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머니의 치마폭을 떠나 검은 자아를 버리고 영적인 자아와 손을 잡고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며, 의식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서 조차 영적 의식과 영적 자각의 발달이 형성되게 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신앙적 자아의식을 길러 하나님의 말씀에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신앙성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따른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결단이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자율적 반응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성에 대한 자신의 주체적 반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주체적, 자기 반영적, 능동적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스

스로 조망할 수 있는 주체적 정체감을 어떻게 심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목회자, 교육자의 과제로 넘겨진다. 신자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감을 갖게 하려면 각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자주 들여다 보게 하고, 자신과 대화를 자주 나누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기의 견해를 반영하게 하고, 건전한 대답을 자신의 신념으로 갖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 성경의 인물들을 모델로 삼아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신앙발달’ 혹은 ‘주체적－자기반영적 신앙’에 초점을 두어 삶 속에서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나침판, 즉 매카니즘을 구축시켜 준다. 칼빈이 강조한 것처럼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가슴(heart)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목회활동을 개발한다. 궁극적으로 신앙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이고 가슴의 문제란 삶과 체험의 문제이다.²⁵⁾ 나침판을 가진 자는 거친 세상적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방향감각을 가지고 항해할 수 있다. 주체적 신앙을 키우려면 말씀의 봉사자와 교회의 교사는 교권적 질서의 우두머리나 훈장(head of schooling order)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이 가능한 친구 혹은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²⁶⁾ 신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조망 하에서 자신의 정체성 형성의 기회로 삼도록 조언한다.

세상성의 도전이 유독히 심할 것으로 예견되는 21세기의 교회성

장은 타율적, 형식적, 관습적 혹은 수동적 신앙인이 아니라 강력한 신앙적 자아의식을 가진 능동적, 적극적, 주체적 신앙인을 많이 확보하는 신앙교육에 달려 있다고 보아진다. 신조(belief)와 함께 신앙(faith)을 키우는 교회교육, 총동원주일 행사 등으로 사람 모으기에 급급한 물량적, 성취주도형 목회사역(achievement-oriented ministry) 보다는 성령 안에서 내실있는 ‘신앙교육’이 기대된다.

- 1) Belief를 ‘신념’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내적 확신(신념)만이 아니라 신조에 근거한 일련의 교리적 확신을 뜻하므로 ‘신조’로 번역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에 가까우나 둘 다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전달하지는 못한다.
- 2) 벌 1 : 25, 딤전 4 : 15, 마 28 : 20 참고.
- 3) See Paul Tillich, *Dynamic of Faith*(New York : Haper & Row, 1957).
- 4) Smith, *Faith and Belief*(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12.
- 5) Smith, 12.
- 6) Smith, 76.
- 7) 칼빈은 신앙은 지식과 이해를 요구하지만 무엇보다 가슴의 문제로 보았다(기독교 강요 II. 28., III. 2. 33. 36). John Hesselink, *On Being Reformed*(Ann Arbor, Servant, 1983, 74~75 참고)
- 8) 전 하바드대학, 현 애모리대학 교수이다.
- 9)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New York : Harper & Row, 1978).
- 10) Ibid. 120~121
- 11) Ibid. 122ff.
- 12) Ibid. 135ff.
- 13) Ibid. 151ff.
- 14) Ibid. 174ff.
- 15) Ibid. 184ff.
- 16) Ibid. 199ff.
- 17) 창 28 : 10~22, 32 : 22~31, 33 : 1~11.
- 18) 에서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남성적인 성품의 사나이였지만 “무엇을 먹을까?”라는 당면한 직접적인 환경에 관심을 쏟았던 포울러가 말하는 유아기적-미분화 신앙의 단계 혹은 직관적-투시적 신앙단계에 해당된다.
- 19) John A. Sandford, *The Man Who Wrestled With God : Light from the Old Testament on the Psychological of Individuation*(Ramsey, NJ : Paulist press, 1974), 21.
- 20)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창 28 : 13).
- 21)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창 28 : 20).
- 22) Sandford, 31.
- 23) 창 32 : 24, Larry Richards, *Let's Day Begin : Man in God's Universe : Studies*

in Genesis and Jacob(Elgin, Ill.: David Cook Pub. 1976).

- 24)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영적 실체를 향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름을 물었던 그에게 그 영적 실체는 대답 대신에 환도뼈를 치고 떠났다. 절룩거리는 야곱은 밤새 씨름한 사람이 단순히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 실체, 능력적인 존재임을 말해 준다.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창 32:30)고 말했다.
- 25) 기독교강요 III. 2. 7, 33; II. 2.8
- 25) 필자와 졸고, 「21세기의 목회현장과 이상적 목사모델」, 「개혁주의 생활과 교회」, 제10집, (1993, 15~40) 「목회자 모델의 역사」 「개혁신학과 교회」 3(1993), 237~277 참고.

교회교육의 전문사역자 훈련을 통한 교회성장

임 창 호*

1. 서론

우리가 교육을 실천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기본조건으로 삼는다. 즉 가르치는 자(교사), 배우는 자(아동), 교육의 내용(교과서 내지는 교육자료), 그리고 교육의 장(학교 내지는 교실)이다. 이 네 가지는 교육 실천에 있어서 매우 기본이 되는 요소이므로 교육의 분야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시되고 있으며, 끊임없는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에 있어서도 위의 요소들은 예외 없

*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고려신학대학원(M.Div.),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대학원(M.Ed.),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대학원(D.Ed.),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